신진 예술인 지원 늘고 원로 회고 공연계 진입

제주문화예술지원 심의 신진 지원 총 84건 결정 우수기획 9건으로 줄어 원로 예술인 지원 총 5건 무용・음악 분야 첫 선정 공연장 상주는 5건 연결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신진 예술인 지원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은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이 처 음 진입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 근 잇따라 공개한 2021년 제주문화예 술지원사업 1~2차 공모 심의 결과다.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1차 공모 심

의에서는 총 296건 19억5000만원 지 원이 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진 예술인 지원은 두 자릿수를 보인 문 학 21건, 시각일반(미술) 21건, 순수 음악 24건 등 총 84건으로 전년보다 12건 2850만원이 늘었다. 일반 창작 지원은 14건 7250만원, 장애예술인 지원 2건 8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단・다년간 지원으로 나뉘는 우수기획지원 건수는 9건 2억8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건 2억3500만 원이 감소했다. 문예재단은 이를 "선 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했다. 단년 지원 사업은 뉴뮤직인제주, 상상창고 숨의 '도래할 풍경', 섬아트문화연구 소의 치유예술 프로젝트 '가족과 예 술', 에코 오롯의 '플라스틱 만다라 2021'. 아트스페이스씨의 오카베 마 사오 개인전, 극단 공육사의 연극 '순이 삼촌', 제주오페라연구소의 '헨젤과 그레텔'등 7건이다. 다년

지원 사업은 고현주, 두근두근시어터 의 '숲에 있어' 2건이 선정됐다.

2차 공모는 제주 원로예술인 지원 등 6개 유형에 걸쳐 이뤄졌다. 심의 결과 57건 5억7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신설된 예술활동 기록 지 원은 우상임, 극단 파노가리, 양상철, 어쩌다밴드 등 4건 2100만원이 지원 대상에 들었다. 예술창작준비지원 유 형은 창작활동준비지원, 창작역량강 화지원을 합쳐 총 26건 9100만원의 지원액이 결정됐다.

구술채록 지원, 회고 지원으로 구분 한 제주 원로예술인 지원은 문학, 시 각, 음악, 무용 분야에 걸쳐 총 5건을 지원한다. 구술채록 지원 대상은 한국 무용협회 서귀포시지부의 '제주의 무용 가 이연심의 발자취' 1건이고, 회고 지 원 대상은 김병택 문학 전집, 허민자의 작품 세계, 김영기 아동문학 40년의 발 자취, 김승택 회고록 등 4건이 뽑혔다.

문화예술연구와 비평 지원은 2건을 선정했다. 제주 출신 평론가를 조명하 는 양은희의 '미술평론가 방근택 평 전' 발간, 김동수(김유정)의 '대지예 술, 영혼의 집 제주도 산담 연구'다.

문예재단은 최근 2021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심의 결과 도 발표했다. 공연장은 가동률을 높 일 수 있고, 공연예술 단체는 창작 지원과 안정적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이 사업에는 총 14 건이 접수돼 5건에 4억6000만원을 최종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 단체와 상주 공연장(괄호 안)은 사단법인 마로(제주도문예회관). 사단법인 국 악연희단 하나아트(돌문화공원 오백 장군갤러리 공연장), 재즈밴드 시크 릿코드(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 주체임버오케스트라(김정문화회 관), 극단 가람(설문대여성문화센 터)이다. 진선희기자



이연정의 '오르다-기억의 공간'

돌아가야 할 그곳, 휴식 같은 오름

이연정의 '… 기억의 공간' 이달 14일까지 돌담갤러리

제주 이연정 작가는 자연으로 돌아 가고 싶을 마음이 들 때면 오름을 떠 올린다. 동물들의 귀소본능처럼 오름 껴진다고 했다.

이름으로 제주 자연으로의 회귀를 담은 그림들을 펼치고 있다. 이달 1 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하 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지하 돌담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이다.

판화와 회화 작업을 오가는 이 작 가는 이번에 캔버스에 아크릴로 오 름을 그렸다. 그것들은 원경으로 자 리 잡고 있다. '흑룡만리' 제주 돌담

너머로 파노라마처럼 긴 곡선으로 잇닿아 있거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 는 섬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바닷길 로 제주에 도착하거나 길을 떠날 때 눈에 들어오는 한라산 자락 아래 아 스라한 오름들도 보인다.

흔히 오름을 오른다고 말하지만 은 그가 끝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느 작가는 멀리서 그 오름들을 지켜본 다. 굳이 오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 그가 '오르다-기억의 공간'이란 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작가에게 오름은 어릴 적 순수한 기억을 일깨 우는 대상이다.

> 이 작가는 "현재의 제주오름은 관 광산업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욕심으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며 "이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제주 오름의 아름다 움과 보존문제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시 연동에 이름갤러리 문 연다

개관 기념 이진휴 작품전 역사적 인물 소재로 작업

제주시 연동에 문을 여는 이름갤러 리(대표 배봉근, 관장 이희숙)가 개 관 기념전으로 이달 7일부터 5월 2 일까지 이진휴 작품전을 펼친다.

이진휴 작가는 스페인 국립마드리 드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싱가폴&베이징 양갤러리 전속으로 있다. 국내외에서 30회 넘는 개인전 을 가졌다.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는?'이란 제목으로 피카소, 레닌 등 우리에게 낯익은 정치 예술 사적 인물을 불러냈다. 원목에 유화 물감, 레이저 드로잉, LED, 철제 등 재료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방식을 넘나들며 작업한 작품들이 나온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다원주의를 견 지하며, 생과 사의 형태와 정치적 평 등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을 제시"하 는 이 작가는 체 게바라, 덩샤오핑



이진휴의 '피카소'

등을 "국가적 또는 역사적 인물로 묘 사하기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 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심상용 평 론)을 보여 왔다.

로 표현해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이

이희숙 관장은 개관전에 맞춰 "현 시대의 감정과 문화를 현대미술 작 품으로 표현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 래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초대한다" 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발견 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갤러리는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에 있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 일은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문의 070-7795-5000.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서귀포예술단 마을 음악회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서귀포관악 단, 서귀포합창단)이 마을로 찾아가 는 공연을 벌인다.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는 서귀포시 지 역 마을 수요 조사 후 10개 마을을 대 상으로 공연할 계획이다. 예술단 방문 공연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동 사무 소를 통해 이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 시 공동기획으로 이달 9일 서귀포 치유 의 숲, 13일 칠십리시공원에서 찾아가 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음협 학생콩쿠르

사)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최 하는 제30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 르가 5월 15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 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콩쿠르는 피아노, 현악, 목 관, 금관, 타악, 성악 부문에 걸쳐 개최된다. 유치부, 초등 1·2부. 초 등 3·4부, 초등 5·6부, 중 1·2부, 중 다. 이와 함께 서귀포예술단은 문화도 3부, 고 1·2부, 고 3부로 나눠 진행 고 쇼케이스, 영상 콘텐츠 온라인 공 된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6~5월 7 개를 이어 간다. 참가 신청은 이달 일 이뤄진다. 문의 010-4102- 15일까지로 온라인 구글폼을 이용하 0278.

'숲에 있어' 참여 프로젝트

제주 두근두근시어터가 '숲.에.있.어 [숲.A.C.E]' 프로젝트 참여할 예술 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제주문화예술 재단의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사업' 다년지원에 선정된 사업으로 1차년 인 올해는 창작 준비 과정으로 숲(곶 자왈) 탐방, 전문가 워크숍이 예정됐 면 된다. 문의 010-6691-1727.

제주어 이야기 어르신 과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어 이야 기 어르신 과정'을 운영한다.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 총 20회 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열리 는 이번 과정은 동화구연가이자 동화 놀이인형꽃 송임선 대표가 진행을 맡 는다. 제주문학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생동감 있게 제주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참가 신청은 제주도공공도서 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해설사가 안내하는 제주 동부 오름

오영삼·강정금 해설사 공저 90개 오름 지질·식물상 담아

해설사가 안내하는 제주 동부지역 오름으로 떠나보자. 자연환경해설사 이자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활동하 고 있는 오영삼·강정금씨가 펴낸 '오 름에 오르니, 내가 보인다' (백록출판 사)를 통해서다.

진을 더해 제작됐다. 성산일출봉 세 계자연유산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일 중단된 코로나19가 이들의 오름 탐 었다"고 전했다. 방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이 책에 실린 오름은 성산일출봉 에서 선흘 민오름까지 닿는다. 해당 오름마다 광대수염, 후추등, 나도공 단풀, 미나리아재비, 가막살나무 등 특징적인 식물 이야기를 곁들였다.

두 저자는 동부지역 90개 오름을 오르며 오름 유래, 마을 사람들이 불 렀던 오름 이름, 지질과 나무, 풀에 얽힌 사연들을 현장감을 살려 써 내 려갔다. 기존에 나온 오름 책자, 백 약 160쪽 분량의 이번 책자는 두 과사전, 식물도감 등을 뒤적이며 자 해설사가 글을 쓰고 직접 촬영한 사 로를 조사했고 때로는 사견을 덧붙 여 원고를 작성했다.

오영삼·강정금씨는 "오름을 탐방 출봉 탐방로, 오정개, 수마포 등에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쌓이 자라는 식물들의 이야깃거리를 만들 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삶의 위로 기 위해 시작된 작업으로 모든 일이 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